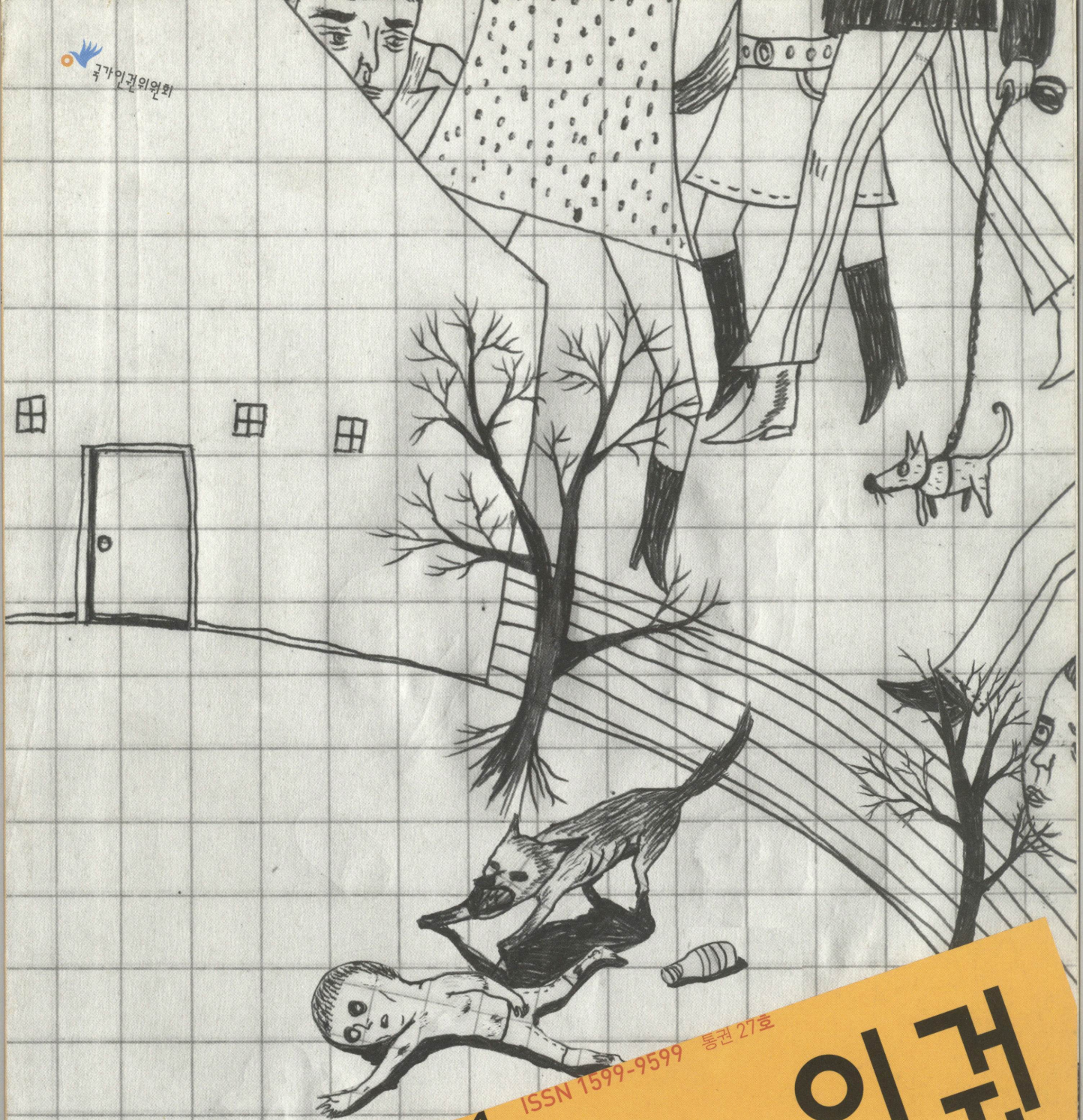




2005.11 ISSN 1599-9599 통권 27호

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

인권

특집 |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들
『인권』이 만난 사람 | 나눔, 그 반체제적인 활동의 중심에서
길에서 만난 세상 |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소주를 붓다

휴먼필 ● 달을 쳐다보게 한 사람 | 김종광

「인권」이 만난 사람 ● 나눔, 그 반체제적인 활동의 중심에서

—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| 최보은

특집 ●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들

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(?) 일주일 / 동성애자로 살다 보면 | 이민철

무지갯빛 사랑을 꿈꾸기까지 | 한채윤

성적 소수자의 천국, 네덜란드 | 이효용

내안의 사람 ● 국수발 사이로 얹힌 두 사람의 이야기 | 서영남

시선 ● 농사꾼 | 노순택

길에서 만난 세상 ●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소주를 붓다 | 박영희

세계의 창 ● 장애 현실, 아직도 배가 고프다 | 성우제

문화 ● 세상이 평화롭다면 작곡가가 아니어도 좋다 | 홍은미

현장 ● 양심의 무게는 얼마일까 | 이명재

편견을 버려! ● 누구의 잘못인가요? | 유승하

국가인권위를 찾는 사람들 ● 숨은그림찾기에는 차별이 숨어 있었다 | 육성철

국가인권위 소식 ● ‘남학생 앞번호, 여학생 뒷번호’는 성차별 외 | 편집부

독자의 소리 ● 서울시는 이팝나무보다 장애인을 생각해야 | 최나현 외

02

04

09

10

16

19

22

24

26

32

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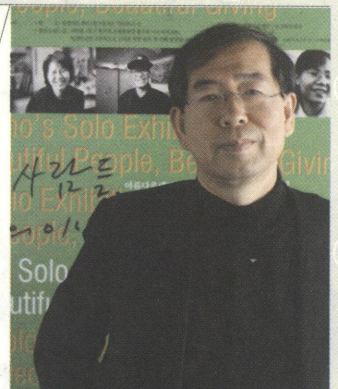
38

40

42

44

48



2005. 11 • 통권 27호

인권

표지그림 한 소년이 죽음을 당했다. 아동의 육체적 생명을 앗아간 것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었지만, 아동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세운 것은 이 사회의 무관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.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무서웠을까. 아홉 살 인생, 그 아이는 그렇게 갔지만 이 사회는 그 상처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. | 이애림

